

특공대·장갑차·헬기 투입?...경찰, '尹 2차체포 작전' 고심

'사실상 마지막 시도' 인력 최대한 투입...적절한 시점·강도 검토 "유혈사태는 지양하겠지만 집행 위해 최대한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경찰이 '2차 체포 작전'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호처 등이 체포에 불응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철조망과 버스벽 등으로 무장하고 요새화한 상황에서, 경찰은 체포작전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체포영장을 다시 받은 만큼 즉각 작전에 돌입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대통령 경호처 등 상대의 준비도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을 들여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한 번의 실행만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박 처장이 이날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집행할 경우 경호처의 힘을 빼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이다. 지난 1차 시도에서는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이 경호처와 군인들에 가로막혀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번보다는 인원을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 화기로 무장된 인력에게 기동대와 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경찰 내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 등은 자칫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도 쉽사리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자칫 유혈 사태까지 터질 경우 견딜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1차 집행 당시보다는 인원을 보강하면서도 형사들이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투입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하지만 1차처럼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탄은 물론 '수사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당이다.

관저를 지키는 시위대 등도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관저 앞을 찾아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아섰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어떤 타계책을 마련했는지도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진입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니 유혈사태 등(이 벌어지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하겠지만,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차벽 설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 수괴 체포는 국가 정상화 이루는 길"

공수처 압박·최상목 결단 촉구 "인력·장비 총동원尹 끌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라"면서 "내란 수괴 체포는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므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 관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이 우위되고 온 나라가 법에 저항하는 범죄자 소굴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또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라.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송순호 최고위원은 "무능함을 속죄하는 차원에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은 과감하고 신속히 하라"고 각각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도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부하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직무상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치하는 공직자가 최 권한대행 외에 누가 또 있나"라며 "말로만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상은 내란 수괴와 그 옹호 정당 앞에 벌벌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행위도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수괴 집 앞에서 법원 영장을 막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올라타는 이단 광신도 정치가 주류 집권 세력으로 복귀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 특공대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민의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도 비슷한 소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 진상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을 요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사 당국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측 "기소하거나 사전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뵈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영광대학교)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